

경제

14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오늘부터 송도서 ‘한중 광장무 축제’

한국관광공사는 3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3회에 걸쳐 ‘한중 광장무(廣場舞) 축제’를 개최한다. 중국인 3700명, 한국인 800명 등 4500여 명이 참가 예정으로 국내 한중문화교류 행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광장무는 중국의 중장년층, 주로 여성들이 광장이나 공원에서 단체로 춤을 추는 여가 활동이다. 약 1억 명의 중국인들이 광장무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행사는 10월 31일과 11월 1일 인천 글로벌캠퍼스, 11월 16일 인천대학교에서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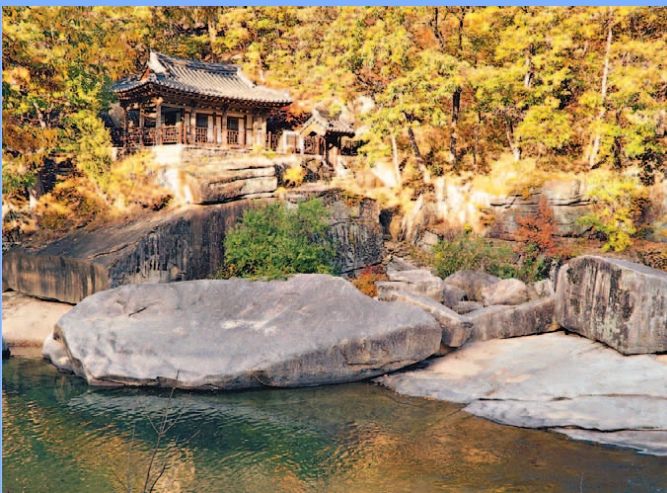
김재범 기자

가을 미니멀 캠핑지, 가평·포천 인기

가을 ‘미니멀 캠핑’의 목적지로 가평과 포천이 인기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종합 숙박·액티비티 예약서비스 여기어때가 올해 9월과 10월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캠·글램핑 예약 상위 10개 지역 중 서울, 수도권과 가까운 가평(32.2%), 포천(26.9%)이 전체의 60%에 달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포인트 늘었다. 이어 양평과 홍천 지역이 각각 5.3%, 5.1%로 집계됐다. 그 외에 춘천, 태안, 경주, 포항, 강릉, 안산 등이 캠핑 여행 방문 상위 지역으로 올랐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김재범 기자의 투얼로지 | 추색이 매혹적인 괴산에 가다



화양구곡 제4곡 금사담과 암서재



산막이옛길 산막이나루와 환벽정



문광 은행나무길

가을에 물든 괴산, 인생샷 남겨볼까

400m 문광 은행나무길 노란빛 절경 괴산호·군자산 둘레길 트레킹에 제격 우암 송시열 머물렀던 화양구곡 장관

가을에는 다른 계절에선 느낄 수 없는 독특한 그만의 빛깔이 있다. 하늘은 다른 때보다 더욱 짙푸르고, 공기의 투명함도 남다르다. 들녘과 산자락은 오색의 단풍이 만들어낸 매혹적인 색깔로 물든다. 가을여행은 이런 추색(秋色)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매력이다.

백두대간과 속리산국립공원과 인접한 충북 괴산은 눈을 즐겁게 하는 가을여행의 매력을 제대로 전해주는 지역이다. 조선 성리학의 거목인 우암 송시열의 지취가 남아있는 화양구곡부터 오롯하게 걷는 산길의 매력이 있는 산막이옛길, SNS로 급부상한 ‘사진 명당’ 문광 은행나무길까지 가을 자연의 매력을 고루 느낄 수 있다.

●저수지 비치는 매혹적인 은행나무 반영 문광 은행나무길은 괴산지역의 떠오르

는 명소다. 주변 농지에 물을 대는 평범한 시골 저수지였는데 마을 진입로에 있는 400m 길이의 은행나무길이 가을 사진 명소로 소문이 나면서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저수지 수면에 노란빛 반영을 만드는 은행나무길과 야트막한 산자락이 어울리는 모습이 멋지다. 새벽 물안개가 낄 때의 몽환적인 분위기도 매력이지만, 해지기 전 짙은 햇살이 드리워지는 모습도 운치가 있다.

●가을 단풍 사이로 보이는 괴산호 절경 트레킹에서 멋진 풍광을 보려면 그만큼의 땀과 노고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괴산의 산막이옛길이 그렇다. 괴산호와 군자산 절경을 옆으로 보면서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속 오솔길인데 난이도가 드물게 무난하다. 나무데크로 길을 잘 조성했고 적당한 스티를 즐길 수 있는 소나무 흔들다리로 있다. 산길로 갔다가 호수 주변을 감상하는 배편을 타고 돌아올 수도 있다. 인근 천장봉이나 등잔봉까지 가는 2~3시

간 여정의 등산로도 있다.

●계곡과 단풍, 기암괴석의 조화 화양구곡은 괴산 자연여행의 간판스타라 할 수 있는 곳이다. 우암 송시열이 머물렀던 곳으로 맑은 계곡물, 기암괴석이란 표현이 딱 맞는 거대한 바위, 울창한 숲이 장관을 이룬다. 3.1km의 산책로를 따라 송시열의 글씨가 새겨진 경천벽부터 운영담, 금사담, 청성대, 능운대, 와룡암과 학소대 등 특색있는 절경을 보노라면 지루할 틈이 없다. 물길 너머 송시열이 세운 정자 암서재가 보이는 금사담은 고운 단풍과 어우러진 포토 포인트다. 계곡 옆 화양서원 터와 만동묘 등 송시열 유적들이 있어 함께 돌아보면 좋다.

●해발 548m 고개의 절경과 폭포 이화령은 높이 548m로 괴산군 연풍면과 경복 문경시 문경읍 사이의 고개다. 나는 새도 쉬어간다는 새재가 있는 조령산과 연결된 고개다. 이곳에는 괴산과 문경을 내려다보는 경치가 일품인 휴게소가

있다. 또한 충주에서 이어지는 새재자연거길을 오가는 자전거 라이더들이 가파른 고개를 오르느라 가뻔한 숨을 고르며 쉬어가는 곳이기도 하다. 차로 10여분 거린 연풍면에는 아담한 계곡 사이로 맑은 물줄기가 쏟아지는 수옥폭포와 이를 바라보는 정자 수옥정이 있는 수옥정 관광지 있다.

●산바섯찌개와 울강이 해장국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괴산에는 자연바섯 음식집이 많다. 별미식당(043-833-21156)은 산바섯찌개와 능이두루치기를 주종목으로 하는 향토 맛집이다. 맑은 물에서 자라는 울강이로 끓이는 울강이국도 지역 별미다. 된장을 풀고 부추 아욱 울강이를 넣어 끓이는데 제법 칼칼하다. 주차장식당(043-832-2873)이 울강이국으로 유명한 맛집이다. 울강이국 맛집으로 유명한 영월 성호식당이 구수한 풍미를 강조한다면, 주차장식당은 얼큰한 느낌이 강한 것이 색다르다.

괴산 | oldfield@donga.com

명인에게 ‘한지 만드는 법’ 제대로 배워볼까

괴산 연풍면 ‘한지체험박물관’ 명소

강소형 잠재관광지는 아직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체계적인 컨설팅과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면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할 지역을 말한다. 한국관광공사가 4월 10개 국내지사를 통해 지역별로 1~2개씩 발굴·선정해 현재 지역관광 명소로 육성하고 있다.

괴산 연풍면의 한지체험박물관도 올해 4월 선정된 충북지역의 강소형 잠재관광지다. 한지체험박물관은 옛 신흥분교 터를 활용해 지상 1층, 건축면적 1326㎡ 만들었다. 이곳에서는 한지의 기원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와 제조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한지로 만든 다양한 생활용품도 전시한다. 한지체험 박물관의 매력은 관장인 충북 무형문화재 제

17호 안치용 한지장의 지도 아래 전통 한지 뜨기, 한지 소원등 만들기, 한지 자연염색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옥종기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장은 “한지체험박물관의 전통문화 콘텐츠가 돋보이도록 효율적인 컨설팅과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2시간 밖에 안걸리는 접근성의 장점을 잘 살려 강소형 잠재관광지 사업의 성공 사례로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괴산 | 김재범 기자



한지의 역사부터 제작과정, 관련 공예품을 전시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는 한지체험박물관 내부. 괴산 | 김재범 기자

희소식

무릎이 불편해서 고생하시는 분~

▶며칠 차고있어 보니 부드럽고 시원해서 좋구나!

▶무릎이 편하면 만사가 즐겁고 행복하다!

휴대용

무르팍엔이 생각났다~

名作 名品

착용해보니 그것 참 신통하구나!

불편한 무릎을 보호해줄 수 있는 생체(生體)에너지 무릎밴드 참 무르팍엔이 출시되어 무릎이 불편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천연광물질에서 다량의 파장이 방사 및 방출되며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무르팍엔에는 4가지 광물질(젤라이트, 그라파이트, 질보석, 의료용 자석)이 침착되어 있으며 그중 그라파이트는 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 이상 팽창시킨 물질로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의 30배에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는 고가 신소재이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무릎에 착용하여 생활해보시면 시원하고 기쁜해집을 느낄 것이며 가볍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겉옷 속에 차고 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고 활동성이 좋아 누구나 일상생활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무릎이 편하면 만사가 편하다

불편한 무릎을 위하여~

상담문의: 무르팍엔 1670-5467

평범하지 않은 중년을 위한 주름개선 미백크림

와~ 주름개선 정말 좋구나! 바로고 확인해보세요

주름이 없어야나이가아리게 보인다.

나이보다 젊어보인다는 말이

자연스러워진다.

부러움의 시선을 느끼게 되고

마음의 힘이 된다.

미백·주름개선

2중 기능성 화장품

나이가공용입니다

중년 남성에게도 너무 좋아요~

어떤 명품크림들과

비교하셔도 좋습니다!

피부가 고우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번더 쳐다본다

상담문의: 주름개선 황칠크림 1600-2865

50~60대가 되면 예쁘다는 말보다 피부가 좋다. 나이에 비해 젊어보인다. 동안이라든 말은 많이 더 듣기 좋습니다. 연예인들을 봐도 나이가 들어도 맑고 투명하고 주름없는 피부가 눈에 띄는데 돈이든 누구나 다 원하는 식으로 포기하고 막연히 부러워만 하십니까?

우선 나이가 어찌보이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름이 없어야 하고 노화현상인 주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주름의 수가 달라지고 보이는 나이가 바뀌게 됩니다.

최근 서남대한황칠협회동조화와 주메이스제약과 공동연구개발한 장보고 황칠크림은 황칠나무 추출액을 함유한 주름개선, 피부미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이미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으며 재구매로 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얼굴주름은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가 나게됩니다.

당실이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탄력이 생겨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팽팽함을 느낄 수 있으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드립니다.

피부가 고우려면 캔시라 외출하고 싶어진다~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싶으신 분들의 전용크림 고귀하신 분들께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 *1세트: 장보고 황칠크림 2개 + 황칠미용수 1개
- *판매량: 서남대한황칠협회동조화
- *용량: 70g/개
- *제조원: 주메이스제약

허리가 불편해 고생하시는 분~

▶허리건강 비밀은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

▶며칠 착용해보니 그것 참 좋구나!

전기가 필요없는 허리따뜻의 놀라운 성능

휴대용

名作 名品

착용해보시고 확인하세요!

전기 없이 스스로 체온과의 열교환으로 발열되는 허리따따 발열밴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4가지 광물질(젤라이트, 그라파이트, 질보석, 의료자석 등) 중 그라파이트라는 신소재는 천연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이상 팽창시킨 물질이며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보다 30배,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는 물질이고 불편한 허리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밝혀 줄 것이다.

또한 가볍기 때문에 겉옷속에 차고 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게 착용할 수 있어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허리가 편하면 만사가 편하다!

불편한 허리를 보호해주는~

상담문의: 허리따따1600-1047